

## 한계에 대한 인식과 지혜

안 경 승\*

### 국문초록

죽음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 상담자가 죽음과 관련된 위기에 처한 피상담자를 이해하고 돕는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다. 지금까지 이해되어왔던 죽음에 관한 접근 방법을 살펴보고, 기독교의 자원이 담고 있는 독특한 면을 생각해 본다. 과학과 문화에서의 죽음, 실존적 입장에서의 죽음, 치료적 관점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다. 또한 인생의 가장 심각한 존재론적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직면이 오히려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 사실을 밝힌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반대로 죽음의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 있다. 이러한 지혜가 세 가지 방향에서 삶에 유익을 주고 있다.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고, 주어진 삶을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채우게 한다.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은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생의 다양한 한계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지혜를 필요로 한다. 비록 죽음학은 돌봄을 위한 학문적이고 실제적 통찰을 주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과 소망에서 도출된 지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중심단어** : 죽음, 한계, 지혜, 의미, 소망

### I. 여는 글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한 사실이지만, 죽음을

- 
- 논문 투고일: 2009년 3월 29일
  - 게재 확정일: 2009년 5월 12일
-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09년 4월 28일

직면한 사람에게나 남겨지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나 위기가 되는 사건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이해하고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기독교 상담자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알고 있고, 죽음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기독교 상담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3, 18).

그러나 막상 기독교가 풍성하고 선명한 죽음에 대한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 깊게 묵상되거나 적용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죽음의 문제를 낫설어 하고 편하게 여기기가 어렵다. 또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나 죽음의 슬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불편해한다. 죽어가는 사람의 가족 역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정과 위장의 분위기가 깊게 파고 들어있다.

부활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죽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격으로 다가온다.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로가 아니라, 나에게 닥치는 죽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는 매해 사순절의 기간과 부활절을 지킨다. 사순절이 재의 수요일과 함께 시작되면서, 이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상기하는 의식을 가져왔다. 재는 죽음을 상징했고 사람들은 머리에 재를 얹으며 우리가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라고 고백한다. 결국 흠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깨달으며, 회개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은 기독교 상담자가 필요로 하는 죽음에 대한 통찰과 상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혜를 추적하려고 한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2)라고 했다. 그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즉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자신의 가장 큰 한계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이해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한 지혜의 선생이 된다. 역으로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직면을 회피하는 것은 어리석게 사는 것이 될 수 있다.

## II. 펴는 글

### 1. 죽음에 대한 대처 방식

성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 죽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sup>1)</sup> 죽음은 이미 정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또 다른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가장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이고(롬 6:23), 그 결과 다양한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게 한다.<sup>2)</sup> 현대인들은 세 가지 방향에서 죽음에 대한 반응과 대처를 해왔다.

#### 1) 문화와 과학의 관점

누구도 쉽게 대답을 줄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는 죽음을 부인하고 회피하게 하였다. 30여년 전에 Geoffrey Gorer는 죽음이 성(性)을 대치하는 터부(taboo)가 되었고, 일종의 음란물과 같이 되었다고 분석하였다.<sup>3)</sup> 사람들은 음란물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죽음과 그 상징물에 반응한다. 의도적으로 죽음을 피하고 심지어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한다. 어린

1) New Bible Dictionary, 2nd ed., s.v. “Death.”

2) Alfons Deeken은 죽음에 대한 아홉 가지 유형의 두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1) 고통에 대한 두려움, (2)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3) 불쾌한 경험에 대한 두려움, (4) 가족과 사회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5)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6) 삶의 두려움에 비롯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7) 인생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8) 개인적인 소멸에 대한 두려움, (9) 죽고 나서 심판과 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Alfons Deeken, *Care for Dying Patients*, 용진석 역, 『마지막까지 그대 곁에』 (서울: 성서와 함께, 2002), 15-32.

아이가 그것을 지켜보지 보지 못하게 한다. 그것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발을 빼고, 단지 속삭일 뿐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괴상하고 엉뚱하고 불쾌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성(性)이 다양한 모양과 무차별적으로 사회 곳곳에 파고드는 것처럼, 죽음 역시 대중매체를 통해서 무수하게 다가오고 있다.<sup>4)</sup> 죽음이 시각 폭력과 함께 자주 등장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일그러진 죽음의 모습에 매료되고 있다.<sup>5)</sup> 대중문화는 어떤 때는 미화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면서 두렵지만 풀고 싶은 죽음을 주는 답답함을 풀어내고 있다. 현대 문화는 죽음을 한 없이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장 왜곡된 형태의 죽음에 노출되고 있고, 결국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지혜를 놓치고 있다. 더 나아가 삶이 어리석어지고 있다. 사는 법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는 법의 지혜를 배우려면 죽음의 의미가 깊어져야 한다. 인간 존재의 가장 커다란 한계인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대중문화가 죽음을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지만, 오히려 죽음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에게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수면 밑에 숨게 된다. 각양각색의 죽음의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지만, 이제는 어른들도 집에서 임종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 이전에 임종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

3) Geoffrey Gorer, *Death, Grief and Mourning*(Garden City, NY.: Doubleday, 1965), 192-199. 같은 관점에서 일단의 학자들 역시 마음 속에 있는 죽음의 역제를 새로운 종류의 음란물과 같다고 설명한다. Bernard Kalish, "Some Variables in Death Attitudes," in *Death and Identity*, ed. Robert Fulton(New York: John Wiley, 1965); Kenneth L. Vaux, *Will to Live / Will to Die* (Minneapolis, MN.: Augsburg, 1978), 12.

4) 한국의 중고생 3명 중 1명이 소위 '야동'이라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2009, 4,10.

5) Marcus Borg, "Death as the Teacher of Wisdom," *Christian Century*, February 1986: 203-204.

는 가족 내의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이제 죽음은 멀리 있는 이상하고 알 수 없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죽음의 인식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죽음이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함께 전문가의 영역이 된 것이다.<sup>6)</sup> 환자를 돌보는 일이 값 비싼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병원과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의료진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고도의 의료기술과 장비와 전문가들이 환자를 효과적으로 돕게 되고, 건강 증진의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환자가 점점 약화되어 죽음에 가까워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생명 연장을 위한 첨단 기술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가족이나 친구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 영역은 전문가의 일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George Fitchett는 기술 문명의 진보가 가져다 준 몇 가지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sup>7)</sup> 첫째, 의료기술의 발전은 평균 연령을 증가시켰다. 전문가들은 이제 노년층에 주로 나타나는 질환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둘째, 건강 돌봄 전문가가 등장했다. 기술과학의 진보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훈련되고 자격 있는 전문가의 출현을 동반한다. 한 때 가족 또는 이웃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돌봄의 활동이 이제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셋째, 돌봄 체계의 관료화가 나타난다. 기술과학의 발달은 효능성과 경제성을 뒷받침해줄 특별한 구조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질환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탁월하게 다루어지는 시설과 이것을 운영하는 조직이 구축된다. 넷째, 죽음에서 자유한 세대의 출현과 세속화가 심화된다. 우리 문화의 세속화와 죽음에서 자유로운 세대의 출현은 모두 기술과학의 산물이다.

죽음이 공동체를 벗어나 요양 시설 속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건강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병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새로운 의학

6) Deeken, *Care for Dying Patients*, 12.

7) George Fitchett, "Wisdom and Folly in Death and Dying,"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19(fall 1980): 206-207.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전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질환이 치료된다는 소식을 접할 때 마다, 머지 않아 모든 병이 정복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심지어 늙기 전에 노화도 막을 수 있고 죽음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급속 냉동기에 들어가서라도 언제 깨어날지 모르며 막연한 세월을 기다리고 싶어 한다. 불멸(不滅)은 하나님의 질서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건강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한다.

삶에 대한 다양한 세속적 가치관 역시 죽음을 유희화 하며 반응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세상은 물질과 성공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물질이 사람들의 가치관의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 잡으며, 이에 따른 대가가 치루어지고 있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성공 여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인간관계는 피상화된다. 무게 중심이 여기에서의 삶에 머물러 있는 한 죽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 2:16)에 마침표를 찍는 무섭고 불행한 사건이다. Robert K. Merton은 Jacques Ellul의 책의 서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과학 기술은 사전에 결정된 결과를 확증하기 위한 복잡하고 기준화된 수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즉흥적이고 숙고되지 못한 행동을 신중하고 이성적인 행동으로 만들어 갈수 있다. 과학 기술에 매진하는 사람은 어떤 지정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좋은 하나의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한다...과학 기술의 원리가 인생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개선된 수단을 추구한다. 사실상 과학 기술은 목적을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전에 존중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어떤 것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때 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반대로 과학 기술은 수단을 목적으로 바뀌게 한다. 노하우가 궁극적인 가치를 차지하게 된다.”<sup>8)</sup>

8) Jacques Ellul, *The Technological Society* (Toronto, Canada: Vintage Books, 1964), xxviii.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현실에서 종교적 가치는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때로는 교육받고 죽음과 관련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다. 기술 문명 자체가 주인이 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실상은 부정한다. 과학이나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날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문제의 뿌리이다.

## 2) 실존적 관점

사람들은 죽음과 씨름하며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을 연습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 철학자들은 설사 죽음이라는 육체적 소멸이 찾아와도, 인간의 본질적 영혼은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또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다.<sup>9)</sup> 또한 죽음은 연습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기원전 348년 80세가 된 플라톤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철학을 요약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내가 한 모든 일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죽음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었다” 스승인 소크라테스 역시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up>10)</sup>

근래에 들어서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장 활발하게 논의했다. 이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죽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실존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자연적 힘에 대한 항복의 순간이 아니다. 사람이 죽음을 기꺼이 수용하면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궁극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직면한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실존주의자들이 관심을 기울인 부분 중의 하나는 실존적 결단과 관련 있는 죽음—실존적—불안이다.<sup>11)</sup> 이

9) Stephen S. Dixon, “On Speaking Clearly While Counseling about Life and Death Decisions,”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31 (December 1977): 253.

10) Deeken, *Care for Dying Patients*, 36.

11) Daryl S. Paulson, “The Nearing Death Process and Pastoral Counseling,” *Pastoral Psychology* 52 (March 2004): 339.

들은 미래를 선택하고 존재론적인 불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진정한 자아가 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부정, 죽음의 부인, 선택과 자유와 책임의 회피가 병리적인 것이다. 죽음에 대한 존재론적 불안을 견디며 의미를 찾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성취적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Borg는 실존주의 철학자 Soren Kierkegaard의 죽음에 대한 관점을 소개한다.<sup>12)</sup> 죽음은 결정적(decisiveness)이다. 그것이 찾아올 때, 한 순간도 늦출 수가 없다. 죽음은 그 절대적 확실성과 함께 동등성에 있어서도 결정적이다. 죽음은 그동안 살아 오면서 사람들을 구분 짓게 했던 모든 것을 무로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찾아온다. 또한 죽음은 모호함에 있어서 결정적이다. 누가, 언제, 어떻게 죽게 되는지 모른다. 절대적인 확실성과 이러한 근본적인 모호성 때문에 죽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사람은 교훈을 붙잡을 수 있다.

죽음의 확실성과 모호성에 대한 인식은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 죽음의 근본적인 모호성은 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고 아름답게 보게 한다. 죽음을 덮어두고 사실상 영원의 시간을 가진 듯 착각하며 살지 않는다. 졸업한 후에, 직업과 재정적 안정이 마련된 후에, 계획이 완수된 후에, 특별한 관계가 설정된 후에 등등 미래의 시간까지 내 것인 양 생각하는 환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실패와 성공의 치열한 일터에서 인간을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가진 헛된 성격을 드러내 준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동등성은 차별과 비교에 의해서 정체성을 세우는 삶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한다.

또한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Kierkegaard가 말한 '비본질적(accidental)' 그리고 '본질적(essential)' 행동 사이의 구별이 가능하다. 그리

12) Soren Kierkegaard, *Thoughts on Crucial Situation in Human Life*, trans. David Swenson (Minneapolis, MN.: Augsburg, 1941), 75-115; Marcus Borg, "Death as the Teacher of Wisdom," *Christian Century*, February 1986, 204에서 재인용.

고 이것은 시간에 대한 지혜로운 활용으로 발전한다. 비본질적 행동은 단지 그것이 완수하는 목적에 의해서만 의미가 부여된다. 그에 반해서 본질적인 활동은 그 자체에, 그 과정에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가치가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못했다고 평가가 절하되는 것이 아니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비본질적 행동은 최소화 하고 본질적 행동을 최대화한다. “죽음에 대한 진지함은 매일 매일이 마지막인 양 살게 하고 동시에 바로 오늘이 인생의 시작인 것처럼 살게 한다.”<sup>13)</sup>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단서였다.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걸림돌이 된다. Kierkegaard는 그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너머의 죽음의 세계를 직면하며, 신앙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했다. 그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오히려 생명의 지혜를 통찰할 수 있었다.

### 3) 치료적 관점

심리학은 인간 심리 속에 자리 잡은 죽음에 대한 생각의 억제, 또는 죽음의 욕구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했다. 이후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에 대한 인식과 죽음의 두려움이 자기실현을 위한 치료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치료적 관점으로 확대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 구체화된 죽음에 대한 연구인 죽음학(Thanatology)은 죽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한 죽음에 당면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통찰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가온 죽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물으며, 이러한 변화에 기여를 한 사람이 Elizabeth Kübler-Ross이다.<sup>14)</sup> 그녀의 연구 방법은 사례 연구의 형태였고,

13) Borg, “Death as the Teacher of Wisdom,” 204.

14) 그녀는 시한부 질병으로부터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이 죽음의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5 단계를 묘사하였다. 1) 부인, 2) 분노, 3) 타협, 4) 우울 그리고 5) 수용. Elizabeth Kübler-Ross,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1969). 반면에 사망학 분야의 학자인 Edwin S. Shneidman은 인간이 일련의 단계를 거쳐 죽음에 이른다는 주

죽어가는 사람을 포함해서 200여명의 사람들과 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녀는 철학과 종교의 고유한 영역이었던 죽음을 학문적 연구의 주제로 만들었다.

Kübler-Ross의 이론의 철학적 근거는 인본주의이다.<sup>15)</sup> 그녀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대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죽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를 피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다. 둘째, 죽어가는 사람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죽어가는 사람이 나의 선생이 되게 한다.

Kübler-Ross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인간 심리의 과정을 묘사하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일종의 종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죽어가는 사람의 감정적 변화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인 '수용'은 단순히 관찰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삶에서 체험하고 고민해야 할 종교적인 주제이고, 신앙적 고백과도 같다. Kübler-Ross는 단지 과학적 관찰에 따른 단계로 설명했지만, 그녀의 통찰은 죽음 후의 삶에 대한 안내와 같은 일종의 종교적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Ernest Becker는 이러한 죽음과 관련된 종교의 기능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그는 죽음에 대한 부인으로 말미암는 신경증적 성향에서 정신적 건강을 성취하는 가장 실행 가능한 방법은 신앙이라고 보았다. 벡커는 죽음의 두려움을 인간의 본성에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다. 영혼의 모든 병은 이러한 실재에 대한 부정과 억제에 뿌리 박혀있다고 논의한다.<sup>16)</sup> 인간이 실존적 곤경에 빠져서 죽음을 부인하고 불안 가운데서 신경증과 같은 병리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의식 또는 무의식 중에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낸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

장을 거부하였다. 그는 인간의 감정과 정서 및 욕구가 다양하고, 사용되는 심리적 방어기제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Edwin S. Shneidman, *Deaths of Man* (New York: Jason Aronson, 1983).

15) Fitchett, "Wisdom and Folly in Death and Dying," 211.

16) Ernest Becker, *The Denial of Death* (New York: Simon & Schuster, 1973), 1-7.

이 난국을 벗어가는 방법은 긍정적 투사(positive transference) 또는 생의 확대된 환상(life enhancing illusion)이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죽음을 초월하는 실재를 바라보게 하는 신앙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죽음에 대한 심리학적 대안은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죽음에 대한 부인을 드러내고 불안을 소망을 바꾸어 주는 무언가를 기대하도록 요청한다.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정직한 인식과 죽음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져왔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는 이들의 시도와 그들이 말하는 신앙이 조금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이들의 신앙의 개념은 인간관에 있어서 모호하다. 인간이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책 때문이다.<sup>17)</sup>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역시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 둘째, 개인적 불멸에 대한 소망이나 신앙은 우주적 힘에 대한 초월적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육신의 한계 내에서 살다가,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 2. 죽음의 한계와 지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일단의 한계들을 직면한다. 어느 한계 보다도 죽음은 예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한계는 또 다른 가능성을 향해서 문을 열게 한다.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특별히 돌봄의 현장에 있는 상담자가 이해한 이러한 지혜는 본인과 함께, 다양한 한계에 직면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자원이 될 것이다.

17) Ray S. Anderson, *Theology, Death and Dying* (Pasadena, CA.: Fuller Seminary Press, 1986), 31.

## 1) 죽음과 지혜

성경의 지혜자들은 삶의 의미있는 질서를 구체화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잠언은 지혜 그 자체가 질서의 원리이고, 지혜로 인해 세상의 기초가 세워졌다고 확증하고 있다. 3:19). 사람들은 세상에 질서를 부여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 지혜를 소유함으로써 지혜롭게 된다. 지혜자들은 삶의 질서 가운데 하나라고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모호하게 등장하는 죽음의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지 오랏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전 2:15-16).

전도서 기자가 제기하는 역설적 질문은 “죽음이 정당하냐?”는 것이다.<sup>18)</sup> 이 질문에 대한 지혜문서의 답은 어리석은 사람이 사는 삶이 죽음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과 죽음은 단지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살면서도 죽음을 경험하고, 비록 동일하게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는 해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서도 생명을 찾아낸다.<sup>19)</sup>

잠언은 생명과 죽음이 무엇보다 그 질(quality)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잠 3:2에서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라고 하지만, 그 사는 삶의 내용이 사실상 생명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생명과 죽음은 생물학적인 유지와 소멸이 기준이 아니고, 날과 시간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잠언 9:18에 보면 부정한 여인과 함께 하는 이는 이미 음부 깊은 곳에 있다고 한다.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 지혜가 얻어져야 생명이 있는 것이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18) Peter L. Berger, *The Sacred Canopy* (Garden City, NY.: Doubleday, 1969), 43-44

19) John J. Collins, “The Root of Immortality: Death in the Context of Jewish Wisdom,” *Harvard Theological Review* 71 (July-October 1978): 179-180.

복되도다”(잠 3:18), 지혜는 또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잠 8:35-36)라고 선포한다. 지혜에 의해서 인도되는 생은 단순히 존재의 연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잠10:11; 12:28).

성경에서 인간의 한계는 피조물의 본질적인 측면이다. 그 한계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찾아왔고(창 3:5, 22), 지혜롭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에 무너지지 않는다. 시락은 이렇게 말한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앞에 간 사람들과 네 뒤에 올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여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내리신 주님의 선고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어찌 거역하려느냐. 십 년을 살든지 백 년을 살든지 천 년을 살든지, 저승에서는 네 수명의 장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집회서 41:3-4). 그는 임박한 죽음의 불안 속에서도 초월적 삶을 말할 수 있었다.

근래에 들어 실증적 관점에서 지혜를 연구한 학자들 역시 인간의 한계와 지혜의 관련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한계에 대한 인식이다. Robert J. Sternberg는 지혜로운 사람은 (1) 그들이 아는 것을 알고, (2)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3) 그들이 현재의 이해와 지식 그 자체의 한계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4)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한계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sup>20)</sup> 지혜로운 사람들은 행하고 행하지 못하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지식의 중요성과 함께, 삶의 추구를 위한 지식의 잠재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역으로 한계를 인식하고 모호한 것을 편하게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는 것을 보게된다. 실증적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생 후기의 발달과

20) Robert J. Sternberg, “Wisdom: Relations to Intelligence and Creativity,” in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ed. Robert J. Sternber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52.

정에 있어서 성숙은 단순히 생활 나이적 요소만이 아니고, 한계로 밀접하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개인의 깊은 인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sup>21)</sup> 죽음의 한계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은 이러한 발전적 단계에서 중요한 사명이 된다. 죽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사람은 자신의 삶을 검토하고 삶의 경험을 평가하게 된다. 만약 사람이 현재의 삶을 수용하면서 죽음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인다면 좌절보다 존중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반면에 죽음과의 직면에 의해서 발휘되는 이러한 창조적 힘에 비해서, “너무 늦었다”는 자탄과 함께 허무함을 수반하는 ‘우울’이 찾아올 수도 있다.<sup>22)</sup>

Erik Erikson은 인생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8단계에서 씨름하게 되는 발달 과업인 통합 대 우울의 과정에서 자아 통합을 성취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갈등과 불안을 줄이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자아통합을 성취하는 것이 지혜라는 인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sup>23)</sup> 이 지혜는 축적된 지식, 성숙한 판단, 포괄적인 이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전의 모든 단계가 구체화된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에 대한, 일명 궁극적 관심에 대한 숙고와 관련되어 있다.

Erikson의 통합 대 우울의 과업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Robert N. Butler의 인생 회고(life review)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과거의 삶을 회고하는 과정을 가지며 인생의 의미를 찾아 가는 것이다. 버틀러는 인생 회고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인간의 보편적 정신 과정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역부족이고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유발된다고 설명한다.<sup>24)</sup>

21) Moshe Halevi Spero, “Death and the Life Review in Halakhah,”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19 (winter 1980): 314.

22) Don S. Browning, “Preface to a Practical Theology of Aging,” in *Toward a Theology of Aging*, ed. Seward Hiltner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1975), 157-159.

23) Erik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W.W. Norton & Co., 1963), 268-274.

24) Robert N. Butler,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 *Psychiatry* 26 (1963): 65-76.

인생 회고 역시 지혜의 성취를 포함해서 인격의 재조직화를 향한 과정이 된다. 더 깊은 자기 인식과 궁극적으로 자기 초월을 향한 잠재적 힘이 된다. 조심할 것은 인생 회고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과거의 갈등과 죄책감을 해결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과거의 인생경험을 통합하고 수용하기 보다는, 비참한 심정으로 실망과 분노에 빠질 수도 있고, 이것이 성격의 해체, 우울, 죄책, 과거에 대한 강박적인 반추로 이끌어질 수도 있다.

통합을 이룬 지혜로운 사람이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반면 통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인생을 낭비했다는 느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절망감을 경험하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안한 죽음을 맞게 된다.<sup>25)</sup>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임박한 죽음에 앞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회상 과정인 인생 회고를 통해서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다.

## 2) 지혜의 실제적 적용

죽음이 통찰되기 시작하면서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은 무엇보다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또한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죽음은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죽음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피상담자를 돕기 위해서, 기독교 상담자가 기억해야 할 죽음에 대한 인식이 가져다주는 실제적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삶을 지혜롭게 채울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 5:15-16). Scott Peck은 “사는 법을 배우려면 우리는 죽음과 친숙해 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

25) 정옥분,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8), 591-592.

음을 우리 존재의 한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게 된다.”<sup>26)</sup>고 한다. 또한 죽음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안은 가능한 한 빨리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할 때 정말로 단순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극복할 수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Kübler-Ross 역시 사람들의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이 되는 것이 부분적으로 죽음에 대한 부정 때문이라고 통찰한다.<sup>27)</sup>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미룬다. 반면에 침상에서 일어나는 매일 아침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 하루하루가 진실로 자기 자신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게 된다.

삶의 선생으로서의 죽음의 이해는 특히 전도서 기자가 강조한다. 전도서 기자는 삶에 의미를 준다고 여겨졌던 즐거움, 풍부한 소비, 인기와 명예, 권력(전 1:12-2:23) 등을 추구해 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연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고 바람을 좇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이러한 덧없음을 알게 하고, 진정으로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죽음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움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전 7:2-4)

전도서 12장 1절의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

26) Scott Peck, *The Unending Journey*, 김영범역, 『끝나지 않은 여행』 (서울: 열음사, 2003), 80-81.

27) Elizabeth Kübler-Ross, *Death: The Final Stage of Growt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5), 164-165.

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에 대한, 또 다른 번역은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무덤(또는 죽음)을 기억하라”이다.<sup>28)</sup> 사람으로 하여금 사는 방식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묵상이다.

죽음은 “변화와 재탄생의 도구이자 생산성을 위한 동기로 이해”될 수 있다. Moshe Halevi Spero는 이렇게 말한다. “죽음의 대한 직면이 삶에 가장 긍정적인 현실적 감각을 준다. 한 개인이라는 존재를 실제적이고 절대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든다. 죽음은 인간의 잠재력을 돕고, 다른 사람의 잠재력 역시 동일하게 이해하고 그를 개별화한다... 자신의 죽음의 피할 수 없는 본질을 깨닫게 될 때, 다른 말로 죽음은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내 인생의 한 요소라는 나의 인식은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어진 삶을 양질의 시간으로 채우게 한다”<sup>29)</sup>

우리 모두는 본래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즉 삶을 해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로 창조되었다. 죽음 역시 생각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수수께끼라고만 하는 죽음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도와주는 자원이다. 그 위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삶에 의미를 더할 수 있다.

이미 삶의 종반에 이른 사람들은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과거에 부족하지만 이루어왔던 여러 가지 성취와 더 나아가 실패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은 우리가 가치를 찾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가치 있는 것의 성취, 잠재력 계발, 이웃을 위했던 좋은 일, 사랑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기독교 상담자는 피상담자가 과거의 경험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을 도와줄 수 있다. 또한 피상담자가 죽음과 고통에서 여러 가지

28) Borg, “Death as the Teacher of Wisdom,” 205.

29) Spero, “Death and the Life Review in Halakhah,” 314.

의미를 찾아 가는 것을 도와주는 동반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삶을 회상하고 검토하는 것은 삶을 의미를 찾고 생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생회고의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숨겨진 기억을 밝혀내기 위한 (1) 기억상기 기법, (2) 자서전이나 저술이나 녹음, (3) 순례여행, (4) 재회, (5) 족보, (6) 스크랩북, 사진첩, 오래된 편지 및 그 밖에 기억할 만한 중요기사, (7) 일생의 사업정리, (8)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집중 등이 활용될 수 있다.<sup>30)</sup>

둘째,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그 이후의 죽음 너머의 삶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생의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 너머의 삶을 반추하게 하는 능력이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견뎌야 했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 복음의 새로운 강조점을 삶으로 체험하였다. 그들은 절망의 시기에 부활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소망했고, 그 소망으로 고난과 더불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다.

Susan D. Bassett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며, 죽음을 보는 두 가지 성향을 제시한다.<sup>31)</sup> 하나는 죽음 그 자체가 마지막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을 어느 곳을 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죽음 그 자체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에는 소망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죽음은 완전한 패배로 상징화 되고 적의와 두려움이 수반되었다. 목적에 이르는 과정으로 죽음을 보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의미를 부여하는 인생의 한 체험이다. 죽음으로 인한 상실이 무서운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죽음은 극복해야 할 체험이고, 극복 후에는 성취가 찾아온다. 특히 이 두 번째 관점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개념과 유사하다. “죽음은 단지 영원한 삶을

30) 정옥분, 『성인, 노인 심리학』, 593-595.

31) Susan D. Bassett, "Death: Tragedy and Triumph,"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14 (summer 1975): 100-105.

위한 관문일 뿐 아니라 장차 올 세계는 이전보다 더 좋은 곳이다. 이전에는 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었지만, 영원한 세계는 의 안에 존재한다.<sup>32)</sup>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라고 물으면서,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를 외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죽음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승리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사실은 죽음에 관한 가장 깊고 소망스러운 교리이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영생의 희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한다. 바울은 죽음이 나 삶을 모두 수용하는 그의 준비된 삶을 이렇게 말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1). 바울은 삶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가 죽어가는 것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두 실재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열려 있었으며,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었던 것이다.<sup>33)</sup>

셋째, 떠나 보냄과 수용, 또는 유머를 통해 인생의 한계를 다루는 능력이 증진된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극도의 고통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유머 감각을 키워주는 것이 제안된다.<sup>34)</sup> 건전한 유머 감각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치료제가 되고 고통과 걱정을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어원상 영어의 유머(humor)는 라틴어의 “우모르”(humor)에서 나왔고 복수형은 “우모레스”(humores)이고 그 의미는 몸에 흐르는 액체이다. 중세 의사들은 인간의 몸에 흐르는 체액을 우모레스라고 불렀다. 그들은 우모레스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력의 본질로 보았으며, 이것이 흐르면서 사람에게 활력과 창의력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목회 상담학자인 Donald Capps 는 유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유머는 자신의 유한성과 한계에 대한 수

32) Bassett, “Death: Tragedy and Triumph,” 104.

33) 장대숙, 『노인학의 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8), 35.

34) Deeken, *Care for Dying Patients*, 34.

용이다. 동시에 유머는 상처 받지 않는다는 승리의 단언이다. 유머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삶의 한계를 그것을 무시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상처를 줄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까딱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서 감당하게 한다.”<sup>35)</sup>

유머의 부족은 삶에서 모든 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생길 수 있는 결과이다. 이것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평온을 위한 기도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라고 한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바꾸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용기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인내,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

Daryl S. Paulson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통제를 구분하면서 수용과 떠나보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sup>36)</sup>

거의 없는 통제	지나친 통제
자신감 있는 통제	떠나 보내는 통제

사분면 중 하나인 “거의 없는 통제”는 삶에서 통제가 발휘되지 않는 것이다. 실수하려 하지 않고 결정과 선택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직면하지 않는다. 죽음과 관련해서는 죽음의 순간까지 죽음을 애써 회피하고 덮어놓고 무시한다. 이러한 전략은 두려움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취약하게 만든다. 죽음이란 심장박동이 멈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선언해 버리고 외면하고 죽음의 부인한다. 하지만 더 멀리 떼어버리려고 할 수록 두려움은 더 가까이 온다.

다른 쪽 극단은 과도한 통제이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35) Donald Capps, *Agent of Hope* (Minneapolis, MN.: Fortress, 1995), 158.

36) Paulson, “The Nearing Death Process and Pastoral Counseling,” 347–348.

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강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일단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마음을 놓는다. 환경, 일, 가족과 이웃의 관계, 그리고 죽음까지도 통제하려고 하지만, 정서적 에너지는 고갈되어 간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리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함을 포기해야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눅 9:24).

자신감 있는 통제는 소망이 지금 현재의 삶을 주도하며, 역설적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여기서 통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다. 소망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계 3:8)과 같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통제해 가는 것이다. 오히려 여기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장차 다가 올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통제는 수용 또는 가게 하는 통제이다. 죽음은 우리가 붙잡을 것을 붙잡게 하고 떠나 보낼 것을 떠나보내게 하는 지혜를 허락한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전 3:2)고 언급한다. 다시 말해 “무엇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적절한 때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sup>37)</sup> 우리는 믿음은 한계를 직면했을 때 내가 의지하던 것을 떠나 보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하며 오히려 강해진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 12:10)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고백이다. 오히려 상실 과정을 통해서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내면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신다.

37) James L. Crenshaw, “The Problem of Theodicy in Sirach: On Human Bondag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4 (1975): 53.

### III. 닫는 글

옛 사람들은 임종을 하나의 예술(*ars moribundus*)로 간주하였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예술을 위해 끊임없이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독교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을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막상 죽음이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게 되었다. 지혜롭게 자신의 한계들 특히 존재론적 한계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이 연습되어야 한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하며 죽음 연습의 모델이 되고 있다.

죽음의 목상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본질적인 측면 중의 하나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죽음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이다. 죽음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것을 알고 믿는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죽음에 대한 기독교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상담자는 죽음의 연습의 가치를 알고 있다. 삶은 즐거움이고 죽음은 그 즐거움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험악한 삶을 살고 있으며, 죽음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열린 문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이 확신이 기독교 상담자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소명을 확인해 준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사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그 소망이 없어서 여기서의 삶이 다인 양 아픔과 쾌락을 오가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날 계수”하는 가르침을 받고, 그 분별과 지혜로 삶을 값지게 만들어 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 지혜가 없어서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장대숙. 『노인학의 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8.
- 정옥분.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8.
- Anderson, Ray S. *Theology, Death and Dying*. Pasadena, CA.: Fuller Seminary Press, 1986.
- Bassett, Susan D. "Death: Tragedy and Triumph."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14(Summer 1975): 100-105.
- Becker, Ernest. *The Denial of Death*. New York: Simon & Schuster, 1973.
- Berger, Peter L. *The Sacred Canopy*. Garden City, NY.: Doubleday, 1969.
- Borg, Marcus. "Death as the Teacher of Wisdom." *Christian Century*. February 1986, 203-206.
- Browning, Don S. "Preface to a Practical Theology of Aging." In *Toward a Theology of Aging*. ed. Seward Hiltner.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1975.
- Butler, Robert N.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 *Psychiatry* 26(1963): 65-76.
- Capps, Donald. *Agent of Hope*. Minneapolis, MN.: Fortress, 1995.
- Collins, John J. "The Root of Immortality: Death in the Context of Jewish Wisdom." *Harvard Theological Review* 71(July-October 1978): 177-192.
- Crenshaw, James L. "The Problem of Theodicy in Sirach: On Human Bondag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4(1975): 47-64.
- Deeken, Alfons. *Care for Dying Patients*. 용진석 역. 『마지막까지 그대 곁에』. 서울: 성서와 함께, 2002.
- Dixon, Stephen S. "On Speaking Clearly While Counseling about Life and Death Decisions."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31(December 1977): 252-263.
- Ellul, Jacques. *The Technological Society*. Toronto, Canada: Vintage Books, 1964.
- Erikson, Erik H.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W.W. Norton & Co., 1963.

- Fitchett, George. "Wisdom and Folly in Death and Dying."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19(fall 1980): 203–214.
- Gorer, Geoffrey. *Death, Grief and Mourning*. Garden City, NY.: Doubleday, 1965.
- Kübler—Ross, Elizabeth.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1969.
- Kübler—Ross, Elizabeth. *Death: Final Stage of Growt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5.
- New Bible Dictionary*, 2nd ed., s.v. "Death."
- Paulson, Daryl S. "The Nearing Death Process and Pastoral Counseling." *Pastoral Psychology* 52 (March 2004): 339–352.
- Peck, Scott. *The Unending Journey*. 김영범 역. 『끝나지 않은 여행』. 서울: 열음사, 2003.
- Spero, Moshe Halevi. "Death and the Life Review in Halakhah."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19 (winter 1980): 313–319.
- Sternberg, Robert J.,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Abstract 】

## Recognition of Limitations and Wisdom

Kyung Seung Ahn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Death is an event that presents a crisis to human beings. Recognizing death and the variety of coping resources, along with meaning attached to death, can help Christian counselor to perceive strategies for providing assistance in time of grief. In reflecting on the subject of death, the author mentions three approaches of death: technological and cultural influence, existential understanding, and therapeutic method. Christian counselor needs to interpret death from a faith perspective. We have the message of eternal life which is so vital. Christians die with hope. Moreover, the Bible tells us that the prerequisite for attaining wisdom is reflection on our numbered days. We must meditate on our own death in order to be wise. When we apply this practical wisdom to our life, it will benefit not only dying person, but also all our life. We can speculate the meaning of life, open our future, and overcome other kinds of limit in our life. In order to really live, we must give ourselves to death. But when we have done so, we discover that we are not to die, but to live.

**Key words:** death, limitation, wisdom, meaning, hope